

저자 (Authors)	金完鎭
출처 (Source)	진단학보 , (48), 1979.12, 73-90 (18 pages) THE CHIN-TAN HAKPO , (48), 1979.12, 73-90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진단학회 The Chin-Tan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1354
APA Style	金完鎭 (1979). 慕竹旨郎歌 解讀의 考究. 진단학보, (48), 73-9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4 10:0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慕竹旨郎歌 解讀의 考究

金 完 鎮

目 次

I. 緒 論	75
II. 解讀의 批判과 代案	79
① 去隱春皆理米	79
②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80
③ 阿冬音乃叱好支賜乎隱	83
④ 貞史年數就音墮支行齊	84
⑤ 目煙廻於尸七史伊衣	84
⑥ 逢烏支惡知作乎下是	86
⑦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87
⑧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87
III. 結 論	89

I. 緒 論

小倉進平(1929)과 梁柱東(1942)의 先驅的 業積 以來로 鄉歌의 解讀에 諸家의 紛紛한 見解들이 發表되어 온 것을 우리는 안다. 그들의 學問的 背景이 다르고, 認識의 次元에도 差異가 있어 같은 水準에서의 比較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제 그 사이의 研究 成果를 檢討하며 또한 整理해야 할 段階에는 到達하였다고 본다. 學問에는 異說들이 存在할 수 있고 그것이 學問을 發展시키는 것이지만, 論理的으로 成立되지 않는 見解들까지가 對等한 하나의 說로 남아 整理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學問的 論議의 盛況이라기 보다는 昏迷의 持續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다루는 慕竹旨郎歌의 解讀에 있어서도, 解讀史의 긴 歷程에서의 紀念物로 남을 뿐, 現在의 時點에서는 考慮의 對象에서 벗어나는 ‘見解’들이 있고, 그 反面에 아직도 斷案을 내리기 어려운 자리에서 ‘說’로서의 競爭力을 維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勿論, 劃期的인 새로운 認識이 登場하지 않는 限, 또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第三의 部類가 또 따로 있다.

우리가 既往의 解釋들에 滿足하지 않고 새로운 解讀을 提示할 때에도, 그것이 既往의 것들을 모두 排除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인가, 또는 既往의 것들과 같은 次元에서 競合되는 것인가를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小稿에서 筆者는 몇 部分에 걸쳐 새로운 解讀의 試圖를 보일 것이나, 그 가운데 적어도 몇은 아직도 論理的 뒷받침이 不足한 ‘暫定的’ 性格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飛躍的 成果를 꿈꾸지만, 실제로 學問은 必要한 모든 段階를 거쳐야만 하는 것 같다.

筆者는 여기 小倉進平, 梁柱東, 池憲英, 金善琪, 鄭然榮, 徐在克, 金俊榮의 解讀들을 檢討 對象으로 選定하였거니와, 一旦은 筆者의 選好 意識이 作用한 限定이다.

먼저 慕竹旨郎歌의 原文을 提示하고 諸家의 解讀과 解釋(=通解)을 보기로 한다.

原 文 :

1. 去隱春皆理米
2.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3. 阿冬音乃叱好支賜乎隱
4. 貞史年數就音墮支行齊
5. 目煙廻於尸七史伊衣
6. 逢烏支恐知作乎下是
7.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8.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小倉進平(1929)

解 讀 :

가는 봄이 다 다스리게

모든 것이사 울오어 설음
 어디매나를 토화한산
 깃 年數 닐음에 버러더 너제
 目煙 멀 스시에
 맛나오어 지스오이리
 郎이야 그릴 ㅅ슴의
 너울 길이
 ㅅ꺄길 굴형에
 잘 밤이 잇이리(오)

意 譯 :¹⁾

봄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울어 시름한다. 어디에 좋아하사 그같이 모습과 나이를, 오늘을 끝으로
 훌어져 가십니까. 幽冥 아득한 境界에서 맛나뵈고져. 郎이여, 내가 郎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의 어
 설픈 잠자리에 눈불일 밤도 없으려니.

梁柱東(1942, 1965)²⁾

解 讀 :

간봄 그리매
 모든것사 우리 시름
 아롬 나토샤은
 즈시 살뽀 더니져
 눈 돌칠 스이에
 맛보옴디 지오리
 郎이여 그릴 ㅅ슴의 너울길
 다뽀ㅅ꺄솔히 잘밤 이시리

釋 詞 :

간 봄 그리매 모든 것사 설이 시름하는데,
 아롬다움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 하옵내다.
 눈 돌이킬 사이에나다 만나뵈도록 (기회를) 지오리이다.
 郎이여, 그릴 마음의 너울 길이 다뽀ㅅ꺄 우겨진 마을에 잘 밤이 잇으리이까.

池憲英(1947)

解 讀 :

간봄 그리매
 물잇사 울울 이시름
 아롬 ㄴ토(ㅅ)샤은
 ㅅ(즈시) 살음 디스니져
 눈(연) 들덜(스(칠) 사이에

- 1) 原文은 日語. 鄭然榮(1972)의 翻譯을 옮겨 놓은 것이나, 끝 부분은 筆者가 손질을 加하였다.
- 2) 初版(1942)에는 第八行이 '다뽀ㅅ꺄솔히...'로 되었던 것을 뒤에 '다뽀 ㅅ꺄솔히...'로 고쳤으나, 'ㅅ꺄솔히'의 解釋도 原來 初版부터 (188~189面) 並存되어 있던 것이며, 文脈으로 判斷한다면 'ㅅ꺄솔히'쪽이 本來부터 无厓가 選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本文과 함께 序頭에 提示한 解讀에 '솔히'라 보이는 것은 小倉進平의 解讀에 이끌린 本意에 反한 錯誤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한편 第三行의 '아롬'(=阿冬音)에 대하여는 增訂版의 補注·劄疑(869)에서 '아롬' 아닌 '아름'으로 읽어야 할 것임을 指摘하고 있다.

맛보웃 엇지 지스호리
 郎(님)여 그릴 뎃슴뎃 니을길³⁾
 뎃스(뎃뎃)굴허허 잘밤 잇호리

通 釋:

지나간 봄(지난 靑春)을 그리워하여, 그저 잇을 수 없어(잇을 수 없어) 우는 이 시름이여!
 아름다우시던 그 모습은 (사라져어) 이제 殞命하시었구나……
 눈을 돌리어 볼(수 있는) 이 空間(이 世上)에서 어찌 다시 만나 뵈오리이까!(아아!)
 입을 그리워하여 이 내 마음은 (입의) 墓邊에 가서 해매이다가 잘 밤도 잇으리로세.

金善琪(1967~1969)⁴⁾

解 讀:

간 밤 가리매
 모든 곧사 울을 이 시름
 아뎃 남고디 주온 좃이
 나수 마춤 따디 녀재
 눈갈 돌울칠 사이애
 맞오디 굶디 짓고카이
 님이야 가릴 마삼애 니을 길
 부질 곧함애 잘밤 알카이

解 釋:

지난 봄 그리오니
 곧곧마다 우는 이 시름
 고음 나타내주신 얼굴이
 나히 자심 그쳐 바리소서
 눈을 끔뻑할 사이에
 만나도록 꼭 하옵게
 님이시여 그리는 마음에 가울 길
 북새 구렁에 잘 밤 잇으리

鄭然燾(1972)

解 讀:

간 봄 거리매 몸돌 거스사
 우울이(로) 시름
 아뎃 남호시온 즈시
 나히 마춤 더니져
 눈 도울칠 스이의
 맞보악디 짓오하이
 郎야, 그릴 뎃슴뎃 니을 길
 다뵈(스) 굴험애 잘 밤 이시하이.

意 譯:

지나간 봄(이) 거듭되매

3) '릴' 한자가 缺字인 것이 分明하여 補入해 놓았다.

4) 「現代文學」誌에 3년에 걸쳐 三國遺事 所載의 鄉歌 14首를 解讀하였는데, 慕竹旨郎歌는 '다기마로 노래'라는 이름으로 1967년 2월호에 실렸다(普賢十願歌는 數年 뒤 2회에 나누어 실었다.)

그것을 거스리지 못하여
 울어(서) 시름(합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나이 마침(늙음)에 떨어지려 하는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잠간 사이에)
 만나뵈음을 짓고 싶습니다.
 郎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는 길(은)
 (해매이다가) 荒村에 잘 밤(도) 있습니다.

徐在克(1974)

解 讀 :

간 봄 ㄹ리매
 모듈 앓사 우름이 시름
 아드름 나토히시은
 좇 年數(또는 「히數」) 나삼 헐히니저
 눈 돌을 츠시의
 맞보히 엇디 짓와리
 郎이야 그럴 ㅁ스리
 너를 길
 다붓ㅅ 굴헝히 잘 밤 이사리

現代語譯 :

지나간 봄(은) (영영) 가리워지매
 (그냥) 앓아 있들 못하여 울기도 시름하기도 합니다.
 昏憊하고 老衰함을 보이신 모습,
 年月(의) 흐름(을) 허물어 버리자.
 한눈팔 동안이나마
 만나도록 어찌 꾸며 낼 수 있겠습니까?
 郎이여 그리워하는 (이) 마음에
 살아가는 길,
 (이) 숙대(밭) 골짜에 어찌 잠 오는 밤이 있겠습니까?

金俊榮(1979)⁵⁾

解 讀 :

간 봄 그리매
 모듈 잇사 울을 이 시름
 아들음 낫호ㅅ샤은 츠시
 年數 주을 디ㅅ니저
 눈 너돌엿틸 스이의
 맞보은 앓디 지오헝리
 郎여 그럴 ㅁ스매 너을 길
 다보갯 굴헝히 잘 밤 잇헝리

直 譯 :⁶⁾

5) 이 著者에게는 前著 『鄉歌詳解』(1964)가 있다.

6) 이 著者는 直譯과 通釋을 붙이고 있으나, 여기 옮겨 놓은 것은 前者의 것이다.

간 봄을 생각하매
 못 있어 울을 이 시름
 애달픈 나타내시은 얼굴
 年數 사이에 돌아자셨구나
 눈을 내들을 사이에
 만나움을 어찌 지으리
 郎여 그리운 마음에 갈길
 삭구령에서 잘 밤이 있으리

音釋 字釋에서 시작하여 大意의 把握에 이르기까지 實로 形形色色이라는 느낌인데, 无厓 先生이 지금까지 生存해 계셨다면, 果然 무어라고 評하셨을까 생각해 본다. 十年, 二十年 前의 말씀을 아직도 되풀이 하셨을까. (1965 : 897~898)

‘...한편 또 나의 숨김없는 느낌을 한 가지 피력하자면, 그후 新進의 多士들이 斯學의 다른 여러 分野에서는 상당히 많은 勞作을 보여 주나, 이 방면의 蘊奧——곧 나의 解讀과 證釋에 대하여는 아직 半句·隻字도 修正해 주는 참으로 快心·點頭되는 새로운 按說이 나타나지 않음이 유감이다. 비록 약간의 부분적 언급이 혹 없음이 아니나, 대부분은 나의 舊見에 색다른 「칠」을 하여 꾸민 「新說」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山 밑에 지나가는 빗소리」일 뿐, 가장 翹望되는 「새 事實의 발견」이 좀처럼 눈에 띄이지 않음이 섭섭하다.’

II. 解讀의 批判과 代案

① 去隱春皆理米

‘去隱春’에 대하여는 小倉進平의 ‘가는 봄’을 除外하고는 ‘간 봄’쪽으로 統一되어 있다. 小倉進平의 ‘가는 봄’은 ‘皆理米’에 대한 그의 理解로 보아 不得已한 것이었겠지만, 現在 形의 表記일 수는 없다. ‘皆理米’에 대한 ‘다 다스리메’라는 解讀도 ‘가는’을 前提로 한 것이기 때문에 无厓 以來로 따르는 사람이 없다.

‘皆理米’에 대하여는 이제 无厓의 ‘그리매’와 鄭然燾·徐在克의 ‘리리매~마리매’ (意味上으로는 兩人的 見解가 같지 않다.)가 남는다. 그런데 无厓의 ‘그리매’에 대한 鄭然燾 (1972 : 68)의 批判은 매우 正當한 것으로, 이미 같은 노래 안의 ‘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에서 ‘그리-’라는 動詞를 나타내는 데에 ‘慕理’가 쓰이고 있는 以上, 그리고 그것이 表記의 正道인 以上, 그것을 버리고 ‘皆理’로 썼다는 것은 納得하기 어려운 論理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 代案으로서의 ‘리리매<마리매’가 滿足스러운 代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봄을 가린다’(積)는 表現이나, ‘봄이 가리워진다’는 表現이 不自然스럽다거나, 詩的 表現으로 不適合하다는 基準에서만 評하려는 것이 아니라, 无厓의 ‘그리매’를 包含하여 ‘皆理米’ 석字를 내리 音讀하는 것에 대한 批判이다. 한 단어가 내리 音讀字로만 적히는 例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문 例外的 存在들이고, 鄉歌에서의 借字 表記의 典型은 첫자를 訓讀字로 놓고 다음을 音讀字로 받치는 것으로 (筆者는 이를 訓主音從의 基準이라命名하였다) 되어있다. 지금까지의 解讀例에서 이처럼 내리 音讀된 部分을 찾아 보면 舉皆의 경우 거기 虛點이 있는 것을 發見할 수 있으며, 无厓의 境遇라면 詩의 直觀에 依한 表現으로 糊塗되어 있는 것을 發見할 것이다.

筆者는 ‘皆理米’에 대해서도 訓主音從式으로 解讀하도록 努力했다. 可能한 讀法이 두가지 있다. 그 하나가 ‘皆=다’의 ‘訓’을 빌어 ‘다오리매’(盡)로 읽는 것이요, 둘째가 ‘皆=모도’의 ‘訓’을 假借하여 나타난 ‘몰 오리매(不能來)다.

이른바 媒介母音의 ‘오/우’가 表記에 反映되지 않는 것이 傳統이므로, ‘다오리매’의 ‘오’에 該當되는 字가 ‘皆理米’에 보이지 않는 것은 容或無怪하다 할 것이나, 先行의 ‘간 봄’과의 意味上的 脈絡이 一致되지 않는다는 데에 決定的 缺陷이 있다. 이미 봄은 가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다할 것이므로’라고 未來形으로 敍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小倉進平처럼 ‘가는 봄’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다오리매’가 제 格에 맞는 것이겠으나, ‘가는 봄’이 不可能한 以上, ‘다오리매’도 成立되지 않는다.

‘모도리매’即 ‘몰 오리매’는 筆者가 論理的으로 想定한 代案의 마지막 것이다. 訓讀의 경우 ‘去隱’의 ‘去’처럼 그 글자의 訓과 나타내려는 形態素가 一致되는 正借와 그 사이의 관계가 同音異義인 假借가 있는데, ‘心未筆留慕呂白乎隱…’처럼 ‘그리-’(畫)를 나타내는 데에 ‘그리-’(慕)를 利用한 것이 그 典型的인 例이다. 用言 語幹을 表記함에 用言 語幹 以外の 것을 利用한 例로는 ‘集刀花乎白良’(고조-[拱]=꽃[花]+오[乎])와 같은 것이 있는데, ‘모도(皆)=몰+오-’도 이 範疇에 드는 것이다. 다만 一對一의 假借가 아니라, 一對二의 假借라는 것이 特殊한 것이다.

② 毛冬居叱沙笑屋尸以憂音

序頭의 ‘毛冬’을 ‘모든’으로 보느냐 不能의 副詞로 보느냐에 따라서 ‘居叱沙’를 名詞로 解釋하느냐 動詞로 解釋하느냐가 決定되는데, 小倉과 无厓 및 金善琪가 前者에 屬하고 池憲英 鄭然燾 徐在克 金俊榮이 後者에 屬한다.

筆者는 이것을 解讀이 옳은 軌道로 옮겨 선 한 例로 본다. ‘毛冬’은 鄉歌中에 여러번 類例를 보이는데, 唯獨 여기서만 다음 말을 名詞로 固定시켜 ‘毛冬’을 ‘모든’으로 修正함이 옳지 못함은 이미 鄭然燾(1972: 70~71)이 指摘하고 있는 바이다. 池憲英의 解讀이 여기 한 轉換點을 마련한 것을 우리는 기려야 하겠으나, 그의 ‘몰’(=毛冬)은 後人의 ‘모들’에 比하여 아직 遜色이 있다.

‘毛’를 많이 音借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聲兼意者라고는 할 수 있을 망정 純粹한 音借라고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毛’는 ‘털’이라는 뜻 외에 ‘無’의 뜻을 가짐을 우리는 안다. ‘몰’의 意味와 ‘毛’의 意味가 完全히 一致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毛冬’에 登場하는 ‘毛’는 訓借에 屬하는 例라 해야겠다. 動詞 語幹으로 쓰인 ‘毛冬’(後世의 ‘모들-’에 해당한다)을 考慮에 넣으면, ‘毛冬’의 發音은 ‘모들’ 아닌 ‘모들’이어야겠으나, 起原적으로는 ‘모+들’(不冬=‘안들’을 參照)이겠으므로 ‘毛冬=모들’이라고 본 无厘의 見解를 排斥할 것만은 아니다. ‘모들’>‘모들’의 變化는 ‘모+자르다’>‘모자르다’(不足)에 準하는 變化였겠다.

‘居叱沙’가 用言일 것은 틀림 없으나, 具體的으로 果然 어떤 語詞의 表記인가는 解讀者들이 苦心慘膽하고 있는 곳이다. 用言으로의 解讀을 最初로 引導한 池憲英의 提案인 ‘잇사’는 形態面에서 無理가 있어 金俊榮 以外에는 따르는 사람이 없다. ‘在’의 뜻이라면 ‘이서’ 以上의 語形은 無理인 것이다. 或 ‘사’가 強勢의 添辭라면 語幹과의 直結이라는 難題를 품는다.

鄭然榮의 ‘거스사’는 語幹으로 ‘거슬-’ 또는 ‘그스-’를 前提한 것인데, 後者는 文脈에 맞는다고는 하기 어려우며, 前者의 경우 語幹末의 ‘ㄹ’이 ‘ㅅ’ 앞에서 脫落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가 強勢添辭로서 語幹과 直結된다는 딜렘마에 빠지고, 或 ‘사’가 ‘ㅅ’에 準하는 것이라면 ‘거슬-’의 ‘ㄹ’이 그 앞에서 脫落하지를 양고 ‘거스르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徐在克의 ‘앗사’는 明言으로 語幹과 ‘사’의 結合을 宣言한 解釋인데(1974 : 58~60), 池憲英의 ‘잇사’ 以來의 宿題인 이 命題가 國語에 可能한 것인지에 대한 解答이 아직은 없다.

‘毛冬居叱沙’에 대한 大意 把握에 있어서도 徐在克의 ‘(그냥) 얏아 있들 못하여’는 池憲英의 ‘그저 있을 수 없어’에 가장 가까운 것인데, 이러한 理解의 成敗도 ‘沙’에 대한 論理의 成立 與否에 左右된다.

‘沙’의 正體가 무엇이든간에, 그것이 音讀될 글자라는 것만은 틀림 없지만, 사람들은 音 ‘사’만을 생각하고 ‘ㅅ’를 考慮에 넣지 않고 있었다. 一般的인 字音으로는 ‘사’요 그래서 強勢添辭 其他를 나타내는데 利用되었겠지만, 釋門의 이른바 音譯語의 表記에서의 ‘沙’字는 音 ‘사’ 아닌 ‘ㅅ’를 지니는 것이요, 이 音을 利用한 表記가 鄉歌中에 적어도 한 곳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普賢十願歌中에서 보는

‘衆生叱田乙潤只沙音也’

의 ‘沙’는 文脈上 ‘ㅅ’로 밖에 읽힐 수 없는 자리에 있다. 筆者는 이 ‘ㅅ’를 ‘居叱沙’의 ‘沙’에 代入한다. 그러면 아직 ‘居叱’라는 語幹이 무엇인지 決定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語幹과 ‘沙’의 結合을 둘러싸고 일었던 難題는 霧散될 것이다. 또한 語尾가 ‘ㅅ’라는 敬語形이 된다면, ‘居叱沙’의 主語는 울고 시름하는 노래 속의 辭說者가 아니요, 어떤 尊貴한 人物일 수 밖에 없게 되며 따라서 그저 있지를 못한다든지, 안질부질 못한다든지 하는 解釋도 根據를 잃게 된다. ‘居叱沙’의 主語로서의 尊貴한 人物이란 여기서 竹旨郎일 수 밖에 없는데, 그는 이미 이 세상 의 몸이 아니어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간 봄과 같은 것이다.

마지막 關門은 ‘居叱沙’의 ‘居叱’에 具體的으로 어떤 動詞 語幹을 代入할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居’字의 意味로 보아서는 ‘살다’가 가장 가깝겠지만, 語幹 末음이 ‘ㄱ’이어서 圈外로 벗어나며, ‘있다’도 尊敬形은 ‘겨샤’밖에 될 수 없어 中間의 ‘叱’을 反映하지 못한다.

萬若 ‘居叱’으로 表記되었던 動詞가 일적 死語化하여 證憑할 길이 없어졌다 하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絶對絶命의 格이겠으나, 아직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合當한 語形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希望하고 싶다. 多幸히, 꼭 符合된다고는 할 수 없어도 意味面으로도 近似한 語形을 ‘깃-’(棲)에 發見하여 暫定的으로 代入시켜 두는데, 다만 이 動詞가 動物에 쓰일 뿐, 人間을 主語로 使用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難點이 있다⁷⁾.

‘哭屋尸’에 대하여는 ‘울’과 ‘울울’의 解讀差가 보인다. 前者의 경우에는 ‘屋’이 長音表記의 方便으로 添加된 것이라 하나, 이러한 說明이 붙은 字들은 例外 없이 解讀이 適切치 않아 달리 읽힐 곳들이기 때문에 筆者는 長音表記라는 發想 自體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梁柱東, 1942: 93에 다섯 例가 提示되어 있다). 그렇다면 ‘울울’이라는 解讀에 左袒할 것인가. ‘울’보다는 낫지만, 筆者는 ‘울울’에도 滿足하지 않는다. ‘오’의 表記에 ‘乎, 烏’의 混在까지는 모르지만, ‘屋’까지가 等價로 混用되었다고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哭屋尸’은 文字 그대로 ‘우로골’, 그리고 여기서 ‘우’는 語幹에 붙는 強調 形態素라고 보는데 이것은 古代語 文法에 대한 筆者의 假說의 理解에 屬한다.

‘愛音’(시름)을 一旦은 名詞形으로 보는데는 小倉進平(설음)까지도 一致되므로 別問題가 없으므로, ‘以’字의 處理 問題가 이 句의 마지막 課題가 된다. 小倉進平의 ‘어’를 除外하면, 梁柱東의 語尾說과 池憲英의 指示代名詞說 그리고 徐在克의 共同格說로 壓縮된다.

筆者는 ‘以’를 指示代名詞로 보는 쪽을 擇하는데, 그 理由는 意味의 脈絡 乃至 文體에 대한 筆者 나름의 判斷에 말미암는다. 울음과 시름이 羅列될 때, 시름하여 운다든지, 시름으로 운다는 말은 되어도, 울어 시름한다거나 울음과 시름이라는 羅列은 自然스럽지 못하다고 判斷한다. 反面 ‘哭屋尸’이 ‘이 시름’을 修飾할 경우에는 시름이 울음의 原因이 되어 論理的으로 시름이 울음에 앞서는 것이 된다.

그러나, ‘以’를 指示代名詞로 보는 데엔 하나의 難點이 있다. 비록 漢字的 意味로 ‘以’에 指示代名詞의인 ‘이’가 兼有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기는 하지만, 鄉歌에서의 用法으로 보면 그 자리에 쓰이는 것이 壓倒的으로 ‘此, 是’요 ‘以’가 아니라는 點이다. 或 우리가 보는 文面의 ‘以’가 本來는 ‘此’字이었던 것이 三國遺事에 收錄되기 以前의 段階, 即 寫本으로서의 傳承 過程에서 草體의 ‘此’字의 轉訛로 생긴 결과나 아닐까 臆測하며 後考를 기다린다.

7) ‘古代에는 人間에도 使用되어...’라고 하고 싶은 곳이나, 이것은 한낱 希望에 不過하다.

③ 阿冬音乃叱好支賜乎隱

難解語인 ‘阿冬音’에 關心이 集中되어 ‘乃叱好支賜乎隱’ 쪽이 너무 素忽히 넘겨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梁柱東 以來로, 些末的인 語形 推定上의 差異는 있지만 한결같이 ‘날호샤온’의 글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오히려 疑訝心이 들 程度다. ‘乃叱’으로 表現됐다는 ‘나’와 ‘호’(好)의 結合이 果然 ‘나토’를 結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 사람쯤은 疑懼를 表示했음직 한 자리인 것이다. ‘스’ ‘ㅎ’의 結合이 音節末에서의 ‘스 : ㅈ’의 中和가 成就된 近世語에서라면 몰라도, 中世 以前의 時期에 ‘ㅈ’으로 發音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기 때문이다. 假令, 5습을 나타내는 ‘닷홉’이 지금 식으로는 ‘다툼’으로 發音될 수 있지만, 좀더 保守的인 傳統的 發音으로는 ‘닷뽀’임을 想起시킬 수 있거니와 鄉歌中의 例를 들어 말한다면, 獻花歌의 ‘不喩慚叱賜等隱’에서의 ‘慚叱賜伊’가 後世의 ‘붓그리-’에 對立될 것이 分명한데, 中世語의 母音間 ‘시’의 結合이 ‘췌’의 結合으로 表記되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겠는데, 이 ‘慚賜伊’를 ‘부트리’乃至 ‘분호리’라고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語形을 어떻게 修正하건 그와는 相關 없이 ‘乃叱好支賜乎隱’이 ‘나타내신’의 뜻을 가진 表現일 수는 絶對로 없는 것이다.

한 單語 全體를 音讀字로 내리 읽고 있을 때, 그 解讀의 信憑性이 매우 낮다는 趣旨의 말을 앞에서 한 일이 있거니와, ‘乃叱好支賜乎隱=날호샤온’도 바로 이 範疇에 屬하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 비록 正鵠을 멀리 벗어난 解讀이기는 하였지만, 小倉進平의 ‘어찌매나를 도화호산=阿冬音乃叱 好支賜乎隱’의 解讀이 훨씬 妥當한 態度를 보였던 것이라고 評價한다.

勿論 筆者는 ‘阿冬音乃叱’을 그가 한 것처럼 ‘어찌매나를’이라고 읽지도 않거니와, ‘乃’를 音讀하지도 않는다. 中世의 資料들은 ‘乃’가 添辭 ‘-사, -샤’에 해당되는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데⁸⁾, 이와 같은 添辭로서 ‘스’(=叱) 末音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곳’이 있을 뿐이오, 이 ‘-곳’은 名詞에 直結되기에 適格한 存在이다. 따라서, ‘阿冬音乃叱’은 ‘阿冬音’이 무엇이랴 읽히든간에 ‘阿冬音곳’이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다.

小倉進平이 ‘好支賜乎隱’의 分節을 正當히 하기는 하였지만, 것처럼 ‘도화호산’이라고 읽는 것은 文面의 表記가 許諾하지 않는다. ‘支’의 頭音이 어떤 音素였는지는 앞으로 더욱 研究되어야 할 課題지만⁹⁾, 中世語와의 對應 關係로는 ‘ㅎ’이나 ‘ㄱ’에 對當되는 存在이고, 母音은 ‘이’일 것이 分明하므로, ‘好支’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도히-’, ‘즐기-’, ‘불기-’ 程度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慕竹旨郎歌의 ‘好支’로 意圖된 것인가를 抽出하는 것은 文脈으로 밖에 判斷할 수 없다. ‘즈시’(貞史)라는 主語를 前提로 한다면, 그 支配를 받을 수 있는 動詞로는 ‘도히-’ 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訓의 假借 卽 義訓借까지를 考

8) 石峰千字文(4)에 ‘乃’를 ‘사내’라 한 것이라든지, 月印釋譜 序(13)에 ‘乃是 사호는 겨치라’한 것에 ‘乃’의 의미에 대한 理解를 볼 수 있다.
9) 俞昌均(1971)에서는 ‘支’字의 音을 gi로 推定하고 있다.

慮에 넣는다면 ‘好’의 意味의 ‘불기-’ (現代語 ‘받키-’)를 빌린 ‘불기-’ (現代語 밝히-’)를 포함시킬 수 있고, 이 ‘불기-’가 現在의 文脈에는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阿冬音’에 대하여도 筆者는 訓主音從의 基準을 固守한다. 鄉歌에서의 다른 ‘阿’字들의 用例가 모두 音讀字로 判斷되는 것들이어서, 여기서 ‘阿’를 訓讀하면 訓讀의 唯一例가 되어 아직은 假說的인 提案이 되는 것이지만, 筆者는 ‘阿冬音’에서의 ‘阿’의 意味를 ‘阿, 邸也’에 求하고 中世語에 文證된 ‘모름’ (莊)과 連結시킨다¹⁰⁾. ‘阿冬音’의 音이 本態의인 純正添記라면 ‘모름’, 代替添記라면 ‘모듬’이겠으나, 어느 쪽이 되어야 할지 確定짓기 어렵다. ‘모름’으로의 發達을 說明하는 데 簡便한 쪽을 택하여 ‘모듬’을 取해 둔다.

④ 貞史年數就音墮支行齊

첫 두 句에서 竹旨郎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지나간 봄처럼 돌아올 수 없는 몸이므로, 여기 邸宅을 밝힌 모습이란 影幀의 모습이겠고, ‘邸宅’은 그 影幀을 피신 殿閣이겠다. 그런데 殿閣을 흰하게 밝히던 그림의 모습도 해가 가고 달이 가면서 점점 멀어만 가는 것이다. ‘貞史年數就音墮支行齊’는 바로 이 허당한 상황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无厓의 ‘살쭈=年數就音’은 奇拔한 着想이기는 하지만 決코 解讀의 正道를 걸었다 할 수 없는 同時에, ‘貞史’가 살아 있는 竹旨郎의 모습을 前提로 하고 주름살이 저간다고 하는 것이었다. 徐在克도 ‘貞史’를 現實의 竹旨郎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就音’을 ‘나삼’으로 읽고 ‘墮’를 ‘힐-’에 連結지은 것은 刮目할만한 進步였다. 그에게 있어 ‘年數就音’은 ‘年數가 흐름’이었고 그렇게 읽음으로써 解讀의 正道에 올라섰던 것이다. 筆者는 ‘就音’을 文字 그대로의 ‘나아감’이요, 名詞形이 아닌 持續의 副動詞形이라고 보거니와, 여기 더하여 ‘年數’에 대한 再考를 提議한다. ‘年數’나 ‘히數’는 詩語되기에 알맞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히 해나삼’이라 읽는다. ‘히’는 動詞 ‘해-’의 目的語인 것이요, ‘해를 해어나감에 따라’의 뜻이 된다. 따라서 ‘墮支行齊’는 主語 ‘貞史’에 대한 動詞가 되는 것이며, ‘힐니저’라 읽힌다. ‘墮支’의 ‘支’를 ‘攴’字의 轉訛로 推定하기 때문에 徐在克의 ‘힐히’를 따르지 않는 것인데, 筆者에게 있어서는 ‘攴’은 ‘支’와는 區別되는 存在로 위의 字를 풀어 입을 것을 指示하는 指定文字다¹¹⁾. ‘貞史’를 主語로 하는 文章이기 때문에 語尾 ‘齊’는 徐在克에게 있어서처럼 共同法의 語尾가 될 수는 없다.

⑤ 目煙迴於尸七史伊衣

매우 重要的 問題들을 隱在시킨 채 意外로 解讀의 進捗이 遲遲했던 句節이다. 그 가운데

10) 諸橋徹次郎의 漢和大辭典에는 玉篇을引하여 ‘阿, 邸也’라 하고 있거니와, ‘모름’ (=舍音)의 用例와 月印釋譜(XXI: 92)에 ‘莊’을 ‘모듬’이라 한 것을 아울러 參照.

11) 우리의 鄉歌 表記와 같이 訓讀字와 音讀字의 混用으로 된 古代 이집트의 遺文 解讀에 있어서, 固有名詞의 存在를 指示하는 指定文字가 있어 解讀의 端緒를 마련해 준 것은 有名한 事實이다.

도 가장 重要한 虛點은 ‘史伊衣’의 解讀에 있었다. 小倉進平이 이를 ‘스이에’라 읽은 以後或 ‘스이에’라 읽기도 하면서 徐在克의 ‘츠시의’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史伊衣’는 一見 ‘스이에’에 가까운 듯하면서도 決코 ‘스이에’의 表記일 수는 없다. 後代의 漢字音에서 ‘史’는 ‘스’이지만, 鄉歌의 表記에 쓰인 ‘史’는 다른 紙寅三等韻의 字들과 함께 母音 ‘이’를 나타내지 ‘으’를 反映하지 않는데다가, 中世語의 ‘△’에 該當하는 子音의 表記는 항상 ‘스’頭音의 字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伊’와 같은 純粹한 母音字를 써서 無視해 버리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을 捨象한 ‘스이에’가 成立될 수도 없는 것이다. ‘史伊衣’에 ‘△’의 反影이 없다고 해서 ‘스이에’로 解讀한 것은 音韻變化에 대한 正當한 理解가 없었던 데에 말미암는 것이요, ‘△’을 脫落시킨 語形이 古代에 想定될 수는 없는 것이다.

叙上의 矛盾을 意識하고, 同時에 바로 앞의 ‘七’字까지를 處理하려 한 것이 徐在克의 ‘츠시의’이나, 그렇다면 ‘시’에는 ‘史’로 充分하기 때문에 ‘伊’가 ‘衣’와의 사이에서 餘分의 글자가 된다.

이 部分의 解讀은 좀더 根本的인 次元에서 再考되어야 한다. 問題가 있을 때에는 原點으로 돌아가 一切의 先入見을 排除하고 資料에 接해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信條이다. 여기서도 筆者는 解讀者들이 小倉進平의 前轍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歎하는 것이다.

筆者에 依하면, 第五行은 다음과 같이 네 단어로 分節된다.

目煙 廻於尸 七史 伊衣

끝에 오는 ‘伊衣’는 ‘더옷’으로 다음 行에 나오는 ‘逢烏支’의 目的語로 ‘더’ + ‘옷’으로 構成되어 있다. ‘옷’은 第三行에서 본 ‘乃叱=覓’의 異形態로 母音 아래에 連接되는 存在다. ‘伊’는 音讀字로는 ‘이’를 나타내지만 訓讀字로는 ‘더’(傳統的인 訓)로서 여기서는 竹旨郎을 가리킨다. ‘七史’의 ‘七’字를 ‘死’ 또는 ‘亡’字의 轉訛로 보는 것이 筆者의 見解의 核을 이루는 것인데¹²⁾ 앞의 動名詞形 ‘廻於尸’을 받아 ‘...함이 없이’의 뜻이 된다.

‘目煙’은 ‘눈’으로서 ‘廻於尸’의 意味上의 主語가 된다. 從來에 大部分의 解讀者가 ‘煙’을 ‘눈’의 ‘ㄴ’을 위한 末音添記로 解釋하였으나 子音 ‘ㄴ’ 하나를 위하여 ‘煙’의 添記를 하게 되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隱’이 誤解를 가져올 危險性이 있어서라면, ‘恩’字도 있고, 또 ‘雲’字도 있을 것이다. 國語의 ‘눈’과 잘 比較되는 蒙古語의 *nidün*(目)까지를 登場시켜 ‘눈’의 先行形을 생각해 보아도 ‘煙’의 必要性은 發見되지 않는다. ‘目煙’의 ‘煙’을 ‘눈’의 ‘ㄴ’으로 보기를 拒否한 解釋 가운데 金俊榮의 ‘눈너돌얼틸 스이의’가 興味를 불러 일으키지만, 달팽이도 아니고 보면 눈을 내두른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한다.

‘目煙’의 ‘煙=너’가 ‘눈’의 末音 ‘ㄴ’과 屬格의 ‘-이/-의’의 結合을 보이는 것은 ‘心未’의 ‘未’가 ‘ㅁ슴’의 末音 ‘ㅁ’과 屬格의 結合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 屬格形 ‘눈너’는 內包文 안의 主語가 됨을 보이는 形態다.

12) 原來 筆者는 ‘死’字만을 생각하고 筆寫 傳承의 過程에서, 또는 三國遺事의 複刻 過程에서 ‘七’字로 轉訛된 것을 假定하였던 것이나, 이 內容을 口頭로 發表하였을 때에 全光鏞 教授께 ‘亡’의 可能性을 指摘받았기에 여기 아울러 적어 둔다.

‘廻於尸’은 ‘도랴’ 또는 ‘도랴’을 위한 表記라고 본다. ‘廻’는 自動詞 語幹 ‘돌-’을 위한 것, ‘於’는 訓讀하여 ‘랴’¹³⁾, 그리고 ‘尸’은 그 末音에 대한 確認添記라 할 것이다. ‘於’가 音讀될 性質의 것이라면 ‘於尸’로서 動名詞形 語尾 ‘-알/-얄’을 나타낸 것이 된다.

‘눈이 도는 일 없이는’이라고 할 때의 ‘돌다’는 눈앞에 있는 現實을 避하는 것을 意味하겠지만, 廻向하는 方向이 어느 쪽인가는 좀더 생각할 문제라 하겠다. 마음에 간직된 回想의 世界일까, 아니면 남이 가 있을 彼岸의 하늘일까¹⁴⁾.

⑥ 逢烏支惡知作乎下是

池憲英의 ‘惡知=었다’의 發見은 特記할만한 存在다. 小倉進平의 ‘맞나오어’는 이제 論外的 것이 되지만, 梁柱東의 ‘맞보옴디’도 두 단어로 읽을 것을 한데 묶어 읽었다는 點에서는 同類의 過誤를 犯하고 있다. ‘惡’을 ‘옴’으로 읽은 것도 問題이지만, ‘옴’은 中世의 ‘습’에서 ‘△’이 消失되고 난 뒤의 形態로 ‘습/습’ 以前의 形態인 ‘畚(白)이 恒用되는 鄉歌의 解讀에 ‘옴’을 導入하는 것은 倒錯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스시’의 後世形인 ‘스이’를 登場시킨 것과 同軌의 일로, 時代的 制約이라고 접어 들 수야 있겠지만, 너무나도 自명한 基礎的 事實의 度外視를 目睹할 때마다 아쉬움이 앞서는 것이다.

‘逢烏支’는 ‘맞보기’에 해당된다. 徐在克의 ‘마조히’에서 ‘히’는 非難할 수 없는 存在이지만, ‘오’(烏)가 意圖形的 ‘오’라면, 動名詞形的 語尾 ‘支’를 連結시킬 수 없다는 데에 難點이 있다. 特히 筆者의 경우에는 앞 行의 끝에서 ‘伊衣’이라는 目的語를 設定해 놓고 있기 때문에 ‘逢烏支’는 動名詞形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作乎下是’에 있어서의 ‘下是’의 讀法은 混沌을 極하였던 代表的인 例이지만, 徐在克에 와서야 겨우 解讀다운 解讀을 보게 되었다. 小倉進平의 ‘이리’나 梁柱東의 ‘리’가 解讀의 外形에는 差異가 있으나 ‘下’를 虛字로 보며(无厘만이 이를 明言하였지만) ‘이’와 ‘리’의 通音이라는 論理下에 ‘是’로써 ‘리’를 나타낸 것으로 본 것 等 그 根本은 같은 것이었는데 ‘이, 리’의 通音으로 ‘是’를 ‘리’의 表記로 생각하는 것이나, ‘下’를 虛字로 處理하는 것의 非論理性이 곧 다음의 解讀者들의 比判의 對象이 된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었다. 池憲英의 ‘깃호리’나¹⁵⁾ 金俊榮의 ‘깃호리’에 ‘下’에 대한 配慮가 反影되었음을 보게 되거나, ‘是=리’에 대한 完全한 清算을 金善琪의 ‘카이’와 鄭然榮의 ‘하이’에서 보게 된다. 그러나 ‘下’字에의 執着이 過한 나머지 또 다른 極端으로 달린 것이 저들의 ‘카이’, ‘하이’였다. 表記의 基本的 모델이 訓主音從이기는 하지만 添記에 使用되는 것이 반드시 音讀字

13) ‘於’의 訓 ‘늘’은 對格 重加形 ‘랴’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늘’은 意味 未詳의 訓이 될 것이다.

14) 耳目口鼻를 擬人化시켜 그 屬格으로 ‘-이/-의’를 取하게 한 例로는 ‘코히 내 마툼과...’(釋譜詳節 XIII : 38)와 같은 것들이 있다.

15) 워낙 簡略한 叙述이어서 分明하는 알 수 없는데, ‘깃호리’의 ‘호’는 ‘作乎下是’의 ‘乎’를 나타낸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第8行의 ‘有叱下是’에 대하여도 ‘깃호리’라 하고 있으므로 ‘호=下’로 看倣한다.

만은 아닌 것이다. 쉬운 例로 ‘下是’의 ‘是’가 바로 그런 例이거나와 ‘下’도 여기서는 訓讀될 位置에 있는 것이다. 徐在克에게 있어서 ‘下是’는 ‘下’의 略音借 ‘알’과 ‘이’의 結合으로 說明된다. 筆者의 說明 機制로는 ‘下’의 訓 ‘아래’에 ‘이’(=是)가 代替添記되어 ‘아리’가 된다.

‘作乎’에 대하여는 한결같이 動詞 ‘짓-’을 配定해 오고 있으나, 이 動詞의 目的語가 되는 ‘逢乎支’와의 關係으로 보아서도 ‘일오-’(=일우-)를 代入시킬 곳이 아닌가 하는 것이 筆者의 意見이다. 따라서 ‘作乎下是’는 ‘일오아리’가 된다.

⑦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郎여 그릴 ㅁ수미 너올 길’(梁柱東)을 基準으로 하여 若干의 出入들이 있으나, ‘行乎尸’을 ‘너를’, ‘니를’로 달리 읽는 것 등은 趣向의 問題에 屬한다 할 것이다. 다만, 첫머리의 ‘郎也’에 대하여는 疑問을 붙여 둔다. ‘郎여, 郎이여, 郎이야, 님이여’等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呼格으로 理解한 點으로 同一한데, 呼格이라면 ‘郎하’ 또는 ‘님하’라고 하였을 것이 期待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郎也’의 ‘也’는 讚書婆郎歌의 ‘郎也持以支如賜乎隱’의 ‘也’와 같은 形態인데 거기서는 主格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의 文脈에서도 ‘郎也’가 呼格을 지니고 獨立語로 游離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慕理白乎隱’의 目的語일 수 밖에 없는데, 같은 形態를 지니고 主格과 對格의 자리에 두루 나타난다면 그것은 一種의 特殊助詞라 할 수밖에 없으나 한두개의 類例를 가지고 그 意味까지를 推定할 수는 없음이 遺憾이다.

⑧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蓬次’에 대하여 意外로 여러가지 語形들을 想定하고 있음을 보지만, 末音添記된 ‘次’字의 存在로 보아 ‘次’받침을 보인 无厓의 ‘다뵈’以外的 ‘뵈’, ‘뵈’, ‘부지’ 등은 排除된다. 한편 方言形 ‘다부지’를 考慮에 넣는다면, ‘蓬次’에 대하여 ‘다뵈’에 앞서 ‘다보지’를 推定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벼리’(星利), ‘자지’(柏史)에 並行되는 語形이다.

‘巷’은 모두가 ‘굴형’(굴허)이라 읽어 오는 데에 无厓가 ‘ㅁ술’로 意見을 바꾸었으나, 앞에 온 ‘蓬次叱’로 보아 亦是 ‘굴형’이 適合하다고 본다. 이것은 이 文脈에서의 ‘巷’의 意味에 대한 判斷에서 筆者가 无厓와는 다른 觀點에서 있는데 말미암은 것이겠다.

前條의 ‘心未行乎尸道尸’에서 ‘心未’를 같이 ‘ㅁ수미’로 읽으면서도¹⁶⁾, 그것을 屬格으로 理解하는 사람과 處格으로 理解하는 사람이 갈리는데¹⁷⁾, 그 差異에 따라 ‘行乎尸’의 主語, 나아가서는 ‘宿尸’의 主語가 달라져, 한 쪽은 ‘마음’이 되고, 다른 한 쪽은 이 노래의

16) 鄭然榮만은 ‘ㅁ수미’即 主格形으로 보고 있으나 ‘意味面에서는 屬格으로 보는 사람과 態度를 같이 한다.

17) 金善琪나 徐在克은 後者에 屬한다.

辭說者 自身이 된다. (‘막스미’를 屬格으로 보면서도 實際로 內容을 把握함에 있어서는 辭說者를 主語로 想定하는 사람들이 있어 事情은 더욱 複雜하다.) 그리고 이 差異에 따라 ‘밤에 잘’ 處所로서의 ‘巷’의 意味에 대한 把握에도 影響이 미쳐, 마음 아닌 사람이 잘 수 있는 곳으로는 ‘마을’이래야 하겠다는 것이 无厘의 생각이었겠다.

‘宿戶夜音’을 ‘잘 밤’으로 읽는 데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고, ‘有叱下是’는 ‘作乎下是’의 例에 따라 ‘이사리’라 읽힐 곳이다¹⁸⁾. 그러나, 이 部分에서의 重要한 問題는 解讀된 語形의 差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었던간에 그것을 平敍形으로 보느냐 疑問形으로 보느냐 하는데 있다. 卽 ‘있으리라’로 解釋하느냐 ‘있을까’로 解釋하느냐가 問題인 것이다¹⁹⁾.

‘有叱下是’에 대한 解釋에서 小倉進平, 梁柱東, 및 徐在克은 疑問形을 擇하고 있는 反面에 다른 解讀者들은 平敍을 取하고 있다. 兩者間의 差異를 筆者는 ‘잘 밤’(宿戶夜音)의 ‘잘’에 대한 認識의 差에 求한다. 똑같은 ‘자다’라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相異한 意味가 識別된다. 하나는 ‘잠자다, 잠들다’(眠, 睡)의 뜻이고, 또 하나는 ‘잠자리를 얻다’(宿, 寢)의 뜻이다. 그 가운데 前者를 取한 사람들이 ‘有叱下是’에 대하여 疑問形을 擇하고, 後者를 取한 사람들은 그것을 平敍形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意味 脈絡상으로 보아 必然的인 結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小倉進平 : [直譯] 잘(眠) 밤이 있을 것인가.

[意譯] 잠 오는 밤도 없으려니.

梁柱東 : 잘 밤이 있으리이까²⁰⁾.

徐在克 : 잠 오는 밤이 있겠읍니까.

徐在克이 가장 徹底하여 ‘行乎戶道戶’의 意味까지도 단순한 ‘가는 길’ 아닌 ‘살아가는 길’이 되도록 하였는데, ‘途中에 잔다’하면 宿所 얻는 뜻이 될 것을 意識・無意識間에 警戒한 結果가 아닐까 하며, 그에 따라 그에게 있어서는 ‘心未’의 處格으로의 指定은 必然이 된다.

筆者는 ‘잘’(宿戶)의 意味를 ‘잠자리를 얻다’ 쪽으로 잡고 ‘有叱下是’를 平敍形으로 認識하는 쪽에 左袒한다. ‘잘’의 表記에 있어 表記者가 ‘眠戶’을 擇하지 않고 ‘宿戶’로 表記한 表記意識을 第一의 根據로 하는 것이거나, ‘心未道戶’도 내 품을 떠나 멀리 九泉 길을 헤매이는 (擬人化된) 마음의 行路로 理解하기에, 그리고 그 途中 荒野에서의 露宿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굴형’은 文字 그대로의 ‘굴형’으로 본다. 竹旨郎의 닢이 머무는 머나던 곳을 찾아 가려면 몇날몇일이 걸릴지 모를 일, 거친 들판을 가로질러 가노라면, 人家도 없는 곳에

18) 徐在克의 ‘이사리’는 매우 正直한 解讀이나, 音韻史의 觀點에서 ‘이사리’라 읽고 ‘有叱下是’ 쪽을 不完全한 表記로 보는 것이 나올 것이다.

19) 第六行末의 ‘作乎下是’에 대하여도 비슷한 解讀 差異가 있었으나, 그 앞의 ‘惡知’를 ‘엇디’로 判斷함으로써 疑問文입을 確定지을 수 있었던 것인데, ‘有叱下是’로 끝나는 文章의 疑問文 與否를 決定지어 줄 形態의 特性은 存在하지 않는다.

20) 鄭然榮이 把握한 意味로는 ‘잠들 밤이 있겠읍니까.’(1972 : 104)

서 다복 우거진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 자야 할 때도 있으리라.

池憲英(1947:14)은 ‘墳墓邊, 共同墓地(北郎山)’을 생각하고 있으나, 竹旨郎의 魂魄이 그의 屍身과 함께 무덤에 묻혀 있는 것으로 思惟되었을까에는 疑心가는 바 없지 않다. 또 有形의 무덤이라면 내 肉身이 찾아갈 곳이겠고, 무엇보다도 굴형은 마음의 行路의 途中에 있는 것이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장황하게 論證해 온 바를 結論的으로 要約하여 解讀과 現代語譯을 아울러 提示 하되, 便宜上 四等分하여 보이겠다.

1. { 去隱春皆理米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1. { 간 봄 곧 오리메²¹⁾
모든 기스사 우로글 이 시름
1. { 지나간 봄은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니,
살아계시지 못하여, 우울 이 시름
2. { 阿多音乃叱好支賜乎隱
貞史年數就音隨支行齊
2. { 마듬곳 불기시은
즈시 히 헤나삼 험니저
2. { 殿閣을 밝히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험어가도다.
3. { 目煙廻於尸七史伊衣
蓬鳥支惡知作乎下是
3. { 누넝 도톨 업시 더웁,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3. { 눈의 돌음 없이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일우리.
4. {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4. { 郎여 그럴 마수릭 너울 길,
다보짓 굴형히 잘 밤 이샤리.
4. { 郎 그리는 마음의 갈 길,
다복 굴형에서 잘 밤 있으리.

先輩 解讀者들의 解讀을 充分히 살피며 批判을 하여 새로운 出發點을 다지되, 可能한 限 그들에게서 先入見을 물려 받지 않기 위하여 原點에 되돌아가 처음 解讀에 臨하는 사람인 양 根本的으로 再檢討하여 얻어낸 結果인데, 從前의 解讀들과 比較하여 解讀과 解釋에 結

21) 鄉歌中에는 그 첫 句가 ‘...米’로 끝나는 것이 여러 편 있다. 當時의 사람들이 즐겨 使用한 措辭 法이었던 듯하다.

쳐 너무 많은 變改가 加해지지 않았느냐는 指摘을 받을 것은 充分히 豫期하면서 한 일이다. 解讀 內容과 解讀의 論理에 있어 一部 假說的인 것이 包含되어 있는 것은 鄉歌 解讀의 現 段階에서는 不可避한 일이며 前進을 위해서는 오히려 要請되는 行爲라고 생각하며, 筆者의 責任에 屬하는 假說에 대한 批判은 欣然히 歡迎한다. 다만, 姊妹 論文들에서 이미 言及됐던 內容은 되도록 復言하지 않도록 努力하였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論理의 飛躍으로 받아들여질 部分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小篇은 近 30年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故无厓 梁柱東先生의 學恩에 대한 報答의 한 表示이지만, 진실로 걱정되는 것은 그에게 있어 筆者의 稚拙한 論議가 아직도 “山 밑에 지나가는 빛소리”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點이다.

參 考 論 著

- 金善琪, 1967. 다기마로 노래, 향가의 새로운 풀이, 現代文學 通卷 146.
 金完鎭, 1977. 鄉歌의 語學的 研究의 基準, 言語와 言語學 5.
 金俊榮, 1979. 鄉歌文學.
 徐在克, 1974. 新羅鄉歌의 語彙 研究.
 小倉進平, 1929. 鄉歌 및 吏讀의 研究.
 梁柱東, 1942. 朝鮮古歌研究.
 1965. 增訂古歌研究.
 俞昌均, 1971. 鄉歌의 「支」字 表記에 對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鄭然榮, 1972. 鄉歌 解讀 一斑, 鄉歌의 語文學의 研究(金烈圭, 李在統과의 共著).